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5호 【루계 제25093호】 주체104(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 제7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가자

총진군의 돌파구 앞장에서 열어가리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 증산돌격전에 궐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려는 애국충정의 열의가 전국의 동력기지마다에서 활화산마냥 세차게 분출하고있다.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전력증산으로 억세게 받들어온 전력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 영광의 대회장에 승리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릴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증산돌격전에 산악같이 총궐기해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현행전력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빠른 시일안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화력발전소들을 맡은 일군들이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있다. 현장으로 달려나간 일군들은 보이라와 타빈발전기앞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수력발전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은 각지 발전소들의 물확보정형과 수력구조물상태를 빠짐없이 료해장악하고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그마한 이상요소도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물관리 및 설비운영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데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북창의 대동력기지가 전력증산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이곳 로동계급은 전투장마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10호, 7호, 4호기에 대한 대보수전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여 종전보다 발전설비들의 가동대수를 더욱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청년직장과 3직장의 로동계급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 때 2직장과 4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보이라계통에 대한 급수 및 공기조절과 진공계통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하차 및 운탄설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며 6호와 15호기의 대보수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면서 지금보다 전력생산을 더 늘일 목표밑에 전투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순천화력발전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돌격전의 불길높이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석탄을 비롯한 연료보장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일군들이 섰다.

이에 발맞추어 열생산직장과 타빈직장, 전기직장의 로동자들이 계절조건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매일 높이 세운 전력생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4호, 5호, 11호기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고 8호기대보수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면서 전력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각지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열의가 전력증산의 동음으로 이어지고있다.

9월과 10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충천한 기세로 언제와 취수구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치며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전세대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며 수풍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증산투쟁을 과감히 벌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수천m의 취수로를 질적으로 정리하여 자체의 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진 강계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일정대로 내밀면서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드셀 박차를 가하고있다.

부전강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수력구조물보수공사를 완강하게 내밀면서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태천발전소와 삼수발전소,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에서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동시에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발전효률을 부쩍 높이고있다. 남강, 장진강, 대동강발전소의 로동계급도 물관리를 짜고들면서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보장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총진군의 앞장에서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열의밑에 증산돌격전에 총궐기해나선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열의

전국적으로 300여km의 도로 기술개건, 600여km의 강하천 정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00여km의 도로를 기술개건하고 600여km의 강하천을 정리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켰다.

이것은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철석의 의지로부터 이룩되고있는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도로기술개건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강원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러 지역의 도로기술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낸 기세로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도에서는 법동군의 도로폭확장공사를 중요과제로 제기하고 기본력량을 여기에 집중하였다. 수십km구간의 도로폭을 원래보다 평균 2m 확장할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의 힘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산악같이 분발해나선 근로자들은 정대와 함마로 바위를 까내면서 일자리를 쭉쭉 내였다.

창도, 이천, 평강, 세포군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수십리구간의 도로폭을 확장하고 안전보호말뚝과 안전보호벽을 세웠다.

량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십km구간의 도로폭확장과 구배낮추기, 곡선펴기 등을 하면서 평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도에서는 삼지연—대홍단—백암도로기술개건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도로를 원래 폭보다 넓히고 옹벽공사와 다리건설, 안전보호말뚝세우기 등을 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도로기술개건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하였다.

삼수, 운흥, 보천군에서 도로폭확장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갈 일념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도로폭을 넓혀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짧은 기간에 도로폭을 확장하고 옹벽공사와 다리보수 등을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수십km의 도로기술개건공사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중요과제로 정하고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위원군, 자성군, 희천시, 우시군, 초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도로폭확장과 옹벽쌓기, 구배낮추기, 곡선펴기, 안전보호말뚝세우기 등을 하였다.

남포시, 평양시,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도로기술개건을 가을철국토관리사업의 중심고리의 하나로 정하고 기세를 올리였다.

강하천정리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안주시, 순천시, 성천군 등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높아진 강하천바닥흙을 파내여 제방을 쌓고 장석공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km의 강하천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강하천정리사업에 떨쳐나섰다. 신흥군, 영광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하천정리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제방을 쌓아나갔다.

평양시, 라선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국토관리사업에 떨쳐나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자랑찬 성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망간합금철생산공정 새로 확립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는 때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 소식이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증산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려진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은 우리 나라의 원료조건에 기초하여 우리식의 새로운 용해방법으로 꾸려진 국산화된 생산공정이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는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며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철강재와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98(2009)년과 주체99(2010)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련합기업소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철생산체계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야금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망간합금철은 강철속에서 탈산작용을 하고 합금화되여 강철의 당김세기와 굳기, 내마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강철생산에 필요한 망간합금철은 품위가 높은 광석을 리용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과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우리 나라에 흔한 저품위망간광석을 가지고도 질좋은 망간합금철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관철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이 우리의 원료조건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것만큼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었다.

련합기업소기술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에 매장되여있는 망간광석에 대한 산지별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배합비선정과 전압, 전류조건에 의한 용해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몇차례의 시험에서 실패도 하였지만 이들은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용해방법을 찾아내였으며 끝끝내 저품위망간광석으로 망간합금철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으며 기술자들도 합금철로공정에 대한 조종반을 자체로 설계 및 제작하여 시험조업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3대혁명소조원들도 우리의 원료에 의한 망간합금철생산공정확립에 발벗고 뛰여들어 설비제작과 설치공사에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지난 9월에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 망간합금철생산을 계속 내밀고있으며 제강행정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강중 망간효률을 20% 높여 중량레루강을 비롯한 강철생산의 정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야금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짚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산소열법에 의한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방법을 완성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전혁철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힘차게 전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시대의 앞장에서 폭풍쳐 내달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미더운 선봉투사,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다는 영웅적신화의 창조자가 되기 위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동맹원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일본새와 혁명적락관주의를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동맹안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짝 차넘치도록 하고있다.

여기에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의 창조자들답게 다시한번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즉시 3호발전소공사장에 이동참모부를 전개하고 대담하고도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청년돌격대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3호발전소의 언제가배수로공사장과 물길굴공사장에서 첫 콩크리트타입전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하는 자랑을 안아왔다.

각 려단별, 대대별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무넘이언제굴착, 압력관로굴착, 조압수조공사장을 비롯하여 3호발전소건설장전역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지금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전의 분과초를 이어가며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고있다.

백두산칼바람은 여기 백암지구뿐이 아닌 청년들이 있는 온 나라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도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 룡담세멘트공장 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건설대상들을 맡아 완공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국각지의 청년분조, 청년작업반들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다가오는 청년동맹창립 7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백두산칼바람은 이 땅의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고있으며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산대국의 불멸의 태양기를 펄펄 휘날리며 뜻깊은 1월의 청년대축전장을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산칼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윤명철

동해가 끓는다, 포구마다 만선기 휘날린다

수산성아래 각지 수산사업소들이 일제히 도루메기잡이전투에 진입, 높은 어획고 기록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 제7차대회를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화답해나섰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이 수산성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일제히 도루메기잡이전투에 진입하였다. 여러척의 가공모선들이 신속히 어장을 차지하고 100여척에 달하는 고기배들은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생산성과로서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해나서는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전통의 남김없는 과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산성의 일군들은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수산성에서 이번에 도루메기잡이준비를 잘하였다. 연유보장과 배수리, 어구준비는 물론 중심어장에서의 집단적인 어로전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으며 원산, 통천, 고성 등 여러 지역의 하륙설비와 가공시설들, 부두들을 증설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잡은 물고기들을 가공모선들과 중심어장의 가까운 포구들에서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뚜렷한 작전밑에 당, 행정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성안의 수십명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도루메기잡이준비로 들끓는 포구들에 달려나갔다. 그들은 현지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기 위해 침식을 잊고 뛰여다니며 일정별목표수행에로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였다.

동해 북변으로부터 곳곳에 위치한 수산사업소들에서 전투전에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이 벌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가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힘차게 내달리였다.

먼바다어로전에서 돌아와 열흘 남짓한 기간에 도루메기잡이준비를 갖춘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하지만 일군이건 어로공이건 누구나가 한덩어리가 되여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수산부문의 전렬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겨울철물고기잡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려주며 사업소별, 선단별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였다. 어로공들이 오래동안 바다에서 불편없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능력이 큰 가공모선의 급동설비들과 가공설비들이 짧은 기간에 정비되고 40여척에 달하는 고기배들을 또다시 집중적인 어로전투에 진입시킬수 있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수산관리국아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고기배들의 정비와 어구준비를 앞세웠다. 동시에 어로공들이 도루메기잡이와 관련한 앞선 어로방법들을 습득하고 중심어장에서의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작업에 대하여 잘 알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10월 하순 바다를 손금보듯 주시하던 탐색선들에서 도루메기떼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련속 날아들었다. 수산성에서는 즉시에 각 수산사업소들의 성능이 좋은 고기배들과 가공모선을 선발하여 회유하는 도루메기떼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개시하였다.

돌격침로를 따라 맹렬히 공격하는 전투함선들마냥 만단의 준비를 갖춘 각지 수산사업소들의 고기배들이 련속 어장으로 향하였다. 제일먼저 중심어장을 차지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고기배들이 기세드높이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함경남도, 함경북도수산관리국아래 각 수산사업소들도 신속히 어장에 진출하여 나날이 성과를 확대하였다.

치렬한 생산경쟁에서는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 양화, 리원, 서호, 청진, 김책, 원산, 련진수산사업소들이 앞장에 섰다. 도수산관리국별순위에서는 500여t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가 첫자리를 차지하고 함경남도, 함경북도수산관리국들이 바싹 따라서고있다.

각지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여러가지 정황에 대처한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고 불리한 바다날씨조건에도 아랑곳없이 과감한 어로전투를 벌리고있다.

지휘선들에는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산성 일군들과 도수산관리국 일군들이 타고있다. 그들은 편대들사이를 종횡무진하면서, 선장이 되여 조타를 잡기도 하고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도 당기면서 어로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고있다.

수산성에서는 수시로 달라지는 어황조건에 따르는 면밀한 대책을 세우면서 당의 수산정책관철에로 각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영원한 승리의 비결—《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마두산의 글발이여, 천만심장에 신념으로 고동치라

절세위인의 발자취 력력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아서

이른아침 우리는 마두산으로 오르는 산길을 톺았다.

따스한 아침해살이 산촌특유의 풍치를 돋구어주어 우리의 마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산기슭에 유정하게 서리여있는 실안개, 은구슬처럼 반짝이는 이슬들이 맺힌 나무잎들, 산속의 송진냄새, 싱그러운 풀냄새가 풍겨오는 청신한 아침공기…

마두산으로 오르는 답사자들의 흐름에 섞이운지라 우리의 취재는 산기슭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원래 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마두산중턱까지 번듯한 도로가 뻗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맞은켠의 이 산길을 택하게 된것은 새로 정해진 마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길로 답사자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전적지취재를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우리가 평양에서 온 기자들이라는것을 알고 반기면서 길동무로 삼아준 답사자들은 안주시의 독산동과 남흥동의 녀맹초급일군들과 녀맹원들이였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뜻깊은 10월을 맞으며 안주시에서는 꾸리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 독산동과 남흥동의 녀맹초급단체가 큰일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리금순, 김옥경동무들은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삶과 투쟁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결의도 다지려고 떠났다고 하였다.

한가정의 살림살이에 그치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억세게 받들려는 지향에 넘쳐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선녀성들의 강직함과 굳센 의지를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반시간정도 산길을 따라 걸어 마두산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산마루에 올라섰다.

넓은잎나무들과 바늘잎나무들, 잡관목들이 빼곡이 들어선 푸른 숲은 끝이 보이지 않을상싶었다.

우리의 마음은 백두의 천연원시림속에 들어선듯 하였다.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천추만대에 전해주려는듯 푸르러 설레이는 밀림속에 서니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

마두산의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하나의 조약돌도 무심히 대할수가 없었다.

일제의 총칼이 조국강산을 뒤덮었던 암담한 그 세월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위하여 투쟁에 나섰던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그들의 령혼을 마두산의 푸른 숲이 지키고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경사가 급한 산길을 조금 내렸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구호문헌이 있다고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으로 금일회합》,

구호문헌의 글발을 새겨안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작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수림속을 무수히 넘나들었을 혁명선렬들의 애국의 피와 땀이 태교연한 마두산의 밀림속에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는가.

《△산》으로 암호화하여 표기한 마두산에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회합을 가지던 선렬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오는듯싶었다.

답사자들모두가 그 구호문헌의 글발을 가슴에 새기면서 굽이굽이 산등선을 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은 산중턱보다 조금 더 높은 숲속의 양지바른 곳에 있었다.

항일의 녀투사들이런가,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에 혁띠를 가뜬히 조여매고 붉은별 빛나는 모자를 단정히 쓴 강사들이 답사자들을 반겨맞아주었다.

우리는 먼저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았다.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은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개건되여있었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와 주변지역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경사관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고 혁명선렬들이 피와 넋으로 새긴 구호문헌들이 보존함속에 실물그대로 규모있게 전시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이곳에 오시였을 때에는 한창 작업중이여서 여기저기에 일감들이 널려있었다고 한다.

그날 정리되지 못한 작업장을 탓하지 않으시고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호문헌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라고 할수 있다고, 이제는 우리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말해줄 혁명의 1세들인 항일혁명투사들도 몇명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런것만큼 우리는 구호문헌들을 세대를 이어가며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전경사관앞에서 강사의 해설이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7(1938)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비서처 성원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안주일대에 파견하시여 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다는 강사의 이야기는 답사자들을 력사의 그 나날에로 이끌어갔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여기 안주지구를 그처럼 중시하시였는가를 사회경제적으로나 자연지리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지점들에 꾸려진 마두산밀영, 상산밀영, 전산밀영, 특맥산밀영들을 전경사판에서 보면서 잘 알수 있었다.

이 일대는 높은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혀있어 유격활동에 적합하고 주요철도선들과 도로들을 가까이하고있어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일뿐아니라 서해곡창지대를 끼고있어 필요한 식량을 저축하기에도 유리한 지역이였다.

《회합참가자들아, 여기를 장악하면 일제 심장 허문다》, 이 구호문헌의 글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마두산의 전략적의의는 컸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가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작전시기에는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었다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국내깊이에 이렇듯 강력한 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령군술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우리는 한 구호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이 글발을 새기던 혁명선렬들의 심장마다에 고동친것은 과연 무엇이였겠는가.

마두산과 멀리 떨어져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을 마음속에 그리며 한자,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근거지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두산을 백두산과 같이 혁명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꾸릴 불타는 맹세를 담아 또 한자…

새겨볼수록 마두산의 무게를 안아보게 하는 구호문헌이였다.

마두산밀영과 여러 밀영들의 구호문헌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백두장수 장도짚고 삼천리 굽어본다》, 《천출천하명인 김일성장군 백두녀장 김정숙 그들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조선의 3대통운 만세》…

이 일대에서 수많은 혁명적인 구호문헌들이 나왔다는 사실자료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항일대전의 나날 국내깊이에서 백두산3대장군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던 우리 인민들의 지향이 얼마나 강렬했으며 마두산을 중심으로 한 안주지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민항쟁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차게 타번졌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얼마후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야외의 본래위치에 전시되여있는 구호문헌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대오를 지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발걸음도 씩씩하게 답사로정을 이어가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강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전적지를 찾는 답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답사길량옆으로 소나무, 참나무 등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밀림의 유구한 력사를 말하여주는듯 강대나무, 진대나무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의 정서를 더 깊게 하였다.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 발걸음을 재촉하느라니 온 나라가 다 알고있는 유명한 구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가 새겨진 나무앞에 이르게 되였다.

얼마나 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구호나무의 글발인가.

지난해 1월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이 글발을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심오한 의미를 담으시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천만의 심장마다에 참된 인생철리, 혁명의 원리를 새겨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겨볼수록 그날의 력사적화폭이 우렷이 어려와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신념의 글발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답사자들모두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의 글발을 심장에 새기며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면서 신념의 구호문헌을 배경으로 숭엄한 자세로 사진을 찍었다.

그 광경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교과서나 도서를 읽었다고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다 안다고 할수 없다. 귀중한 혁명전통이 이룩된 혁명전적지들을 직접 찾아가 걸으면서 보고 듣고 느낄 때 혁명선렬들이 지녔던 고귀한 정신세계를 깊이 체득할수 있다는것이다.

우리에게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담긴 깊은 의미가 새롭게 안겨왔다.

참으로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견결한 투쟁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준 력사적장거였다.

세월이 흐르면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달라지기마련이다.

하지만 백두의 혈통을 이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이며 대를 이어 굳세게 이어져야 하는것이 바로 혁명의 피줄기이다.

혁명의 피줄기는 결코 저절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장의 높은 뜻을 따라야 혁명의 피줄기는 꿋꿋이 이어지며 혁명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전진할수 있다는것이 지나온 조선혁명사가 보여준 진리이다.

진정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온 나라에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되였다.

우리는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마치고 떠나는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의 심장마다에 높뛰는 세찬 고동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마두산에 오르리. 행복의 길을 걸을 때에도, 시련의 준령을 넘을 때에도 마두산의 글발을 안고 살리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으리라!

본사기자 채 히 성

한생토록 간직할 투사들의 그 신념

마두산의 울창한 숲속을 걷는 나의 가슴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구호나무의 글발들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떨쳐나섰던 혁명선렬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있었기때문이였다.

조용히 눈감고 그 목소리를 듣느라니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
세월의 모진 눈비마저 지울수 없었던 이 글발은
빨찌산들의 당부되여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

진정 세월의 모진 눈비도 지울수 없었던 구호나무의 글발들이 아닌가.

혁명의 1세들의 그 높뛰던 심장의 박동소리에 귀기울이게 해주는 구호나무의 글발들은 우리의 마음을 항일의 거세찬 불길이 타번지던 격전장에 세워주었다.

글줄마다에 절세위인들에 대한 충정의 송가를 새기고 고향과 조국, 겨레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노래하며 애국을 호소하고 침략과 매국, 배신을 단죄한 티없이 순결하고 뜨거운 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호나무의 글발들.

혁명선렬들이 피와 넋으로 글발들을 새겨가던 그 나날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흘렀던가.

나라없던 그 세월에도 백두산을 그리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고 따르던 이 나라 인민들의 민심이 그 도끼자리들에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가.

비록 나무에 새긴 글발은 세월의 풍파에 흐려질수도, 없어질수도 있지만 인민의 심장에 새겨진 구호문헌의 글발들은 영원히 지우지 못한다. 구호문헌의 글발들은 그것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인민의 신념과 충정으로 지켜지기에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우리 혁명의 영원한 국보로 되는것이다.

일찌기 10대의 그 시절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길을 개척하시며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의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해방전 이 지구의 일제순사놈들은 구호나무들을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고 한다.

항일의 빨찌산대장의 존함만 들어도 벌벌 떨던 놈들인지라 제놈들이 산에 올라가 구호나무를 없애버리자니 그렇게 할 용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또 그대로 못 본척하고 방심해두자니 《대일본제국》의 순사복을 입은 체면이 서지 않았다.

하여 놈들은 글을 모르는 이곳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에 씌여진 글을 도끼로 깎아오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주겠다고 얼리면서 산으로 올려보냈다.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그처럼 갈망하던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신출귀몰의 유격전법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시며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백두산청년장군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놈들의 강요로 산으로 올라간 인민들은 여느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서 도끼로 나무를 깎아 놈들에게 바치였다.

인민들의 애국적인 소행에 의하여 구호나무들은 보존되였다.

결과 이 지구의 산들에는 아직도 도끼자리가 나있는 나무들이 많다고 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오랜 세월 자연의 풍화속에 묻혀버릴번 하였던 수많은 구호나무들이 도처에서 발굴되였으며 영원히 영구보존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들에서만도 수많은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였다.

혁명선렬들이 남긴 구호나무의 글발들을 혁명의 고귀한 유산으로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전통은 계승해야 빛난다는 말이 있다.

지난 시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글발들이였다.

그러나 오늘 백두산과 더불어 마두산의 신념의 글발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혁명의 만년재보로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고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를 자기의 신념으로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마두산의 신념의 글발들은 더욱 빛나게 되였다.

마두산으로, 마두산으로 답사대오는 굽이쳐흐르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천만의 심장의 목소리가 조국강산에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로 울려퍼진다.

본사기자

‖수 필‖

력사의 메아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루안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각하

나는 앙골라독립 40돐을 맞으며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1월 5일 평 양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습

룡천군 신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군들부터가 회상기의 내용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그는 적들의 끈질긴 추격과 포위속에서도 부대의 식량을 마련할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본받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는 길에서 선군시대 농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고 리을설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객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결사보위하였으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투사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무력기관들,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주조 외교단, 무관단과 해외동포들

고 리을설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0일 주조 외교단, 무관단,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무력총참모부대표단이 중앙로동자회관에 안치되여있는 고인의 령구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손님들은 외교단과 무관단, 로씨야련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을 진정한 다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전우로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에 앞서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

우리 전세대들은 당 제6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였다

10월의 경축광장에서 또다시 5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짚는 진격의 발걸음소리가 강산을 울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은 무한한 격정과 함께 뜨거운 감회로 젖어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주체68(1979)년 12월 13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가 대서특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힘찬 투쟁을 벌려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삽시에 떨쳐일어나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덮혀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련일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평양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이 매일 2만t이상의 짐을 더 실어나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릴 때 동해의 날바다를 헤가르며 어로전투를 벌리던 수산부문의 로동계급은 당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를 받아안은 때로부터 불과 3일사이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경축 사회주의경쟁》을 벌릴데 대한 회천공작기계공장(당시) 로동계급의 불같은 호소에 화답하며 주체69(1980)년 새해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은 10월의 대회장을 향하여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대형전기기관차 《붉은기》 6호와 현대적인 객차들, 40t급 《금수산》호대형자동차들이 련이어 생산되고 원산—고원, 회천—만포철도전기화공사, 북청—덕성광산철길공사, 검덕광산(당시)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제2단계공사, 봉화화학공장 제2계단공사를 비롯한 중요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전국각지의 수산기지마다에 대규모랭동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판모봉》호, 《염분진》호, 《베개봉》호, 《장자산청년호》와 같은 1만4천t급, 2만t급의 대형짐배들을 련이어 바다에 띄워 자립경제의 위력을 크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가 온 나라에 메아리치고 력사적인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대돌격전투—100일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하루하루가 그대로 격동이고 사변이였다.

우리 조국이 거세찬 숨결로 맥동치며 세상을 들었다놓던 못잊을 그 나날에 평양산원, 창광원과 같은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남들은 10년, 20년이 걸려도 이룩할수 없는 거대한 창조의 재부, 충정의 선물을 안고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장에 들어선 우리 조국,

바로 그때 세계는 보았다.

우리 인민모두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르며 따르던 불세출의 위인,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같은 영상과 존함을 《로동신문》의 지면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였다.

신문에 모셔진 《김정일》이라는 그이의 존함에는 그 어떤 특별한 존칭수식사도 없었고 세계앞에 처음으로 나서신 그이의 옷차림은 보통사람들과 다름없이 너무도 소박하였건만 장군님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 되시여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추대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장식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세계가 다시한번 깨닫는 순간이였고 우리 당과 조국의 창창한 래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는 사변이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당의 수많은 당원들, 혁명의 주력을 이룬 새 세대들이 태여나 처음으로 력사적인 당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당 제6차대회 전야에 이 강산을 진동하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땅에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미증유의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당창건 일흔돐을 환희롭게 경축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력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사상도 뜻도, 인품도 덕망도 꼭 같으신 또 한분의 태양을 모신 조선이 21세기의 령마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자기의 뜻깊은 당대회에 어떤 승리의 선물을 안고 들어서겠는가를 지켜보는 세계의 눈길앞에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긍지높이 대답할것이다.

우리의 승리를 보려거든 우리 당의 력사를 보라.

위대한 수령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실 때 승리의 력사는 흘러가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주 오는것이라는것을 우리는 세계앞에 다시한번 증명할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조선의 기상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천만군민을 또다시 새로운 비약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총돌격 앞으로!

내 조국땅 어디서나 힘차게 울려나오는 심장의 웨침이다. 이 힘찬 웨침이 메아리되여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대전력생산기지 북창땅이 달아오르고 협동벌들이 끓어번지고있다. 거리와 마을에서는 녀맹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추켜든 붉은 기발이 출근길에 오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주고 취주악대의 박력있는 취주악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있다.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10월의 하늘가에 불타올랐던 충정의 열정이 또다시 비약에로 내달리고있다.

◇ 조선의 기상은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끊임없이 비약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기적창조의 동음을 높이 울려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전후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원쑤들의 궤변을 짓뭉개버리며 기적우의 기적을 창조해나갔고 우리 당이 펼친 계속혁명의 기치따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197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 80년대속도창조의 위대한 장을 수놓아온 우리 인민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달려온 인민군군인들과의 군민협동작전밑에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지난 10년간 진행해온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0년을 넉달로 주름잡으며 억년언제를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의 자랑찬 성과야말로 선군조선의 위용이고 조선의 기상이다.

◇ 조선의 기상을 떨쳐나가는 총공격전에서 영원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정신적재보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떠나 정신력의 강자로 존엄떨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과 기풍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곧 조선의 기상이다.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수없이 가로놓이고있다. 아무리 미래를 갈망하고 충정을 맹세해도 신념의 기둥이 없다면 오늘의 진군길을 헤쳐나갈수 없다. 천만군민이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때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한다.

만족을 모르는 불같은 일본새

함주군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당창건 70돐을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함주군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이 일터마다에서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한 일군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였을 때의 흥분된 심정을 아직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던 만세의 환호소리가 당대회가 열리게 될 5월의 하늘가에도 더 높이 울리게 하려는것이 만족을 모르는 우리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지향이랍니다.》

사실이 그러하였다.

지난 10월 하순에 들어와서도 공장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최근에만도 그들이 생산한 세멘트는 군안의 많은 단위들은 물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도 수요가 높아 미처 생산하기 바쁠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만족이라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세멘트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갈수록 공장로동계급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다.

얼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공장앞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그때 지배인 조병호동무가 회전원통분쇄기의 매달부분을 굴개식으로 개조할데 대한 안을 내놓았다. 기발한 착상이였다. 매달대신 베아링을 리용하면 얼마든지 세멘트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었다.

김일남동무를 비롯한 공무작업반원들이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지구를 창안도입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릴 때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도 부족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해결하느라 뛰고 또 뛰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설비개조를 끝내고 세멘트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쌍축혼합기를 개조할 때에도 공장로동계급은 어머니당앞에 충정의 선물을 마련해간다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자체의 힘으로 해냄으로써 사람들을 놀래웠다.

무슨 일에서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본새가 남달랐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이 진행되고 온 공장이 세멘트생산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이라는 글발을 심장에 새기고 세멘트생산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였다. 바로 이런 떳떳한 마음으로 그들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섰으며 오늘도 세멘트생산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위용과 기상을 다시한번 과시하자.

이것이 바로 력사의 분수령을 바라보며 다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관차수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대진군의 앞장에 우리가 서리

중앙동물원개건공사에 참가한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건설자들

모두의 눈빛이 한곳으로 쏠렸다.

숨막힐듯 한 정적, 드디여 고요를 깨치며 호각소리가 길게 울린다.

육중한 뽈트라스가 기중기에 물려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것을 지켜보는 긴장감이 실린 얼굴들, 그들은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는 대외건설지도국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방대한 조류관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 크게 기여한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건설자들은 솔선 새 전투임무를 맡아안았다. 자연박물관지붕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것이였다.

작업장에 사업소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반영된 전투속보가 나붙었다.

《당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기세드높이 대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자.》

높이가 30여m에 달하는 지붕천정에 뽈트라스를 조립 및 설치해야 하는 작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어려운 작업이였다. 난문제는 지상확대식으로 조립한 무게가 수t은 잘되는 뽈트라스를 어떻게 들어올리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기중기의 권양능력을 높이는것은 공사속도를 높이는 문제와 직결되여있었다.

고심어린 탐구끝에 기중기의 권양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쥐였다. 하지만 그 안전성여부에 대한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었다. 바로 이때 사업소종업원들이 들고일어났다.

《돌진만을 아는 우리 사업소가 언제 난관앞에 주저한적이 있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되여 기중기권양능력을 배나 초과하는 뽈트라스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그날은 하늘도 맑게 개인 지난 10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

기중기쇠바줄에 매달린 중량물은 서서히 그리고 중단없이 계속 오르고있었다.

어느덧 긴장한 시간이 흘러 거대한 뽈트라스가 수십m높이의 지붕우에까지 올라갔을 때였다. 갑자기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솔솔 불던 바람이 강풍으로 변하였던것이다.

바람방향에 따라 공중에 떠있는 육중한 중량물이 좌우로 흔들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질바질 타들었다. 자칫하다가 지붕의 구조물과 부딪칠수 있었던것이다. 상상만 해보아도 무서운 일이였다.

바로 그때 12직장 부직장장 오현동무가 주저없이 허리에 바줄을 매며 손에 기발을 들고 전투를 지휘하던 기사장에게 말하였다.

《아무래도 결사전을 벌려야 할것 같습니다.》

《안되오. 위험하오.》

《우리에게야 물러설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높은 지붕을 향해 달려가는 오현동무, 그의 뒤를 이어 김영철, 정남홍, 송철우동무들도 따라섰다. 날쌔게 몸을 날려 공중에서 흔들거리는 뽈트라스에 뛰여오른 그들은 중량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결사의 전투를 벌리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한 시간이 흘러 기중기에 매달린 대형구조물이 드디여 지붕의 자기 위치에 정확히 들어앉았을 때였다. 《성공이다!》하고 웨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뒤이어 건설자들은 서로 어깨들을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들의 투쟁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일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진군의 앞장에 서야 할 자신들의 본분을 다했을따름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자욱마다에는 이런 값높은 위훈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내달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뜻깊은 5월을 맞이할 일념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는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오늘도 억척같이 간직한 소중한 지향이 뜨겁게 울리고있다.

대진군의 앞장에 우리가 서리!

본사기자 리건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0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장혁 철도상, 김두일 철도성 정치국장,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나라의 철도운수를 떠메고나가는 맏아들공장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굴지의 차량생산기지이며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수도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는 위력한 혁명진지이라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기업소의 70년력사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주체적인 철도운수발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기업소가 기관차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령도사로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34(1945)년 11월 10일 평양철도공장 로동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업소로동계급이 새형의 기관차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높이 치하하시면서 친히 이름도 지어주시고 기업소가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을 추동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첫 현지지도자욱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날을 기업소의 창립일로 제정하여주시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붉은기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새 세대 전기기관차개발과 객차생산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나라의 철도를 일신시키는데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통찰한 당중앙은 기업소를 추켜세우는것으로부터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올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었으며 당창건 일흔돐까지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전체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기업소는 지난 70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기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디딤돌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축하문은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붉은기정신을 불멸의 전통으로, 가장 고귀한 재부로 심장속에 쪼아박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기업소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애국충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기업소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년대들에 남다른 연혁사를 충정의 땀으로 새기고 당중앙을 우러러 다진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힘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혁혁한 로력적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수의 보고에 이어 부기사장 김철민, 객차직장 초급당비서 리철진, 청년동맹위원장 김영남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도현대화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붉은기정신으로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온 나라 철도로동계급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 세대 전기기관차와 인민들이 좋아하는 객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활동과 경영관리에서 우리 식의 통합생산체계를 완비하는것을 비롯하여 기업소를 산업시설의 본보기로 꾸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고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단위들에서 축산을 하자

알곡먹이비중을 줄인 비결

덕지강은하피복공장에서

고원군에 가면 축산을 잘하여 소문난 단위가 있다. 바로 덕지강은하피복공장이다. 지금 여기로는 축산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은 어느 단위에서나 다 하여야 합니다.》

공장안에 아담하게 건설된 100여㎡의 크지 않은 축산기지에서는 해마다 10t이상의 돼지고기가 생산되여 종업원들에게 매달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종업원들모두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날마다 혁신의 꽃을 피워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것은 공장의 일군들과 관리공들이 알곡먹이비중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데 대한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받아들인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강냉이가루와 콩깨묵, 쌀겨 100여kg과 600여kg의 풀을 가지고 넉달동안에 70~80여kg의 돼지를 길러내고있다고 한다.

먹이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강냉이가루, 콩깨묵, 쌀겨의 일정한 량에 석회와 뇨소를 두고 물을 부은 다음 집짐승성장촉진제를 골고루 섞어서 24시간 발효시키면 된다. 이것을 풀과 함께 먹인다.

이들이 리용하고있는 집짐승성장촉진제는 증체률을 13%이상 높이고 설사, 피부병 등의 질병을 방지하며 고기의 질도 개선한다. 이렇게 만든 먹이는 끓이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연료가 절약되여 효과적이다.

그러면서도 영양가가 있고 흡수률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또한 겨울철 돼지우리온도보장문제를 매우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온도보장이자 곧 먹이절약이기때문이다.

이들은 돼지우리바닥에 무동력보이라를 놓아 온도를 보장해주고있는데 이렇게 하니 겨울에도 돼지고기생산량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가스배출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여러 위치에 내주어 축사안에 언제나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함으로써 호흡기질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 현상이 거의 없다.

지배인 박성재동무가 축산기지건설을 발기하였을 때 이들에게는 축산에 대한 이렇다할 경험도 없었고 토대도 미약하였다.

하지만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속에 담겨진 깊은 뜻을 되새기며 부족되는 자재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실리를 따져가며 설계한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관리공들인 전명숙, 김영순, 김은주동무들도 자기들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여러가지 참고도서들을 탐독하면서 먹이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관리공들모두가 축산부문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공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70~80마리이상의 돼지들을 기르면서 해마다 고기생산량을 계속 늘여가고있다.

결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당의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는 이 공장의 경험은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축산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고 어떻게 밀고나가는가에 그 성과여부가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박영진

복합균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적인 큰 투자없이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에서 올해 고기생산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 알곡생산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비결이 있다.

사실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논인 농장의 조건에서 많은 집짐승먹이를 보장한다는것은 헐치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관리위원장 홍광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알곡먹이대신 풀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대로 큰단백풀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그리하여 작업반마다 평균 200㎡정도 되는 큰단백풀재배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큰단백풀의 영양보장을 위하여 집짐승배설물도 자주 넣어주도록 하였다. 농장에서는 이와 함께 닭배설물도 집짐승먹이로 대대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이렇게 마련한 먹이원료로 발효먹이를 만들어 집짐승에게 먹임으로써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발효먹이생산은 그 공정이 간단하였다. 우선 멸균한 일정한 량의 강냉이가루에 복합균을 넣어 확대배양하였다. 이것을 큰단백풀, 닭배설물을 비롯한 먹이원료에 일정한 비률로 섞고 알맞춤한 온도를 보장하면서 이틀정도 놓아두면 먹이가 발효되였다.

복합균을 리용한 결과 알곡먹이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집짐승의 증체률을 높일수 있었다. 또한 발효먹이의 맛이 독특하여 집짐승의 먹성을 훨씬 개선할수 있어 좋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복합균으로 처리한 발효먹이는 끓이지 않고 그대로 먹이기때문에 농장적으로 숱한 땔감을 절약할수 있었다.

이렇게 먹이문제가 해결되니 많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었고 거름생산도 늘어났다. 비육분조마다에서 해마다 700~800t정도의 거름을 생산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이게 하였다.

본사기자 황철민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절약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전력의 효과적인 리용과 그 방도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자면 전력증산에 못지않게 생산된 전력을 극력 절약하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는 전력공업성의 해당 일군들을 만나 이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전력사정에 맞게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는 무엇인가.

국장 김명철: 무엇보다먼저 전력부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는것이다.

아는바와 같이 전력생산과 소비는 서로 떨수 없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전력생산량에 맞게 전력부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전압과 주파수를 비롯한 전기의 질적지표들이 떨어지며 그것은 전력생산지와 송배전단위, 소비지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전력계통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례로 부하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주파수가 1Hz만 떨어져도 많은 량에 달하는 전력도중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부하조절을 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생산을 맡은 성, 중앙기관 및 각 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부문과 단위들에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원칙에서 이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부국장 김용철: 현대적기술수단에 의한 과학적인 부하전력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하여야 한다.

이미 평양시송배전부에서 중심구역의 모든 변전소들에 높은 측정정밀도와 보호기능을 갖춘 현대적인 수자식전력관리장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전력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있다.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시, 군들에 과학적인 부하전력관리체계가 도입되였다. 특히 자강도에서는 도급전체계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에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전력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발전소, 변전소들과 송배전선로들에 대한 실시간감시를 진행하고있다.

해당 송배전계통에 인입된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전력리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여 부하전력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결과 누구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공급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송변전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빠른 시일안에 전국적범위에서 과학적인 부하전력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면서 그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기자: 전력의 효과적인 리용에서 교차생산조직이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국장 김명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교차생산조직을 더욱 짜고드는것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화력탄생산보장을 맡은 부문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중요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중요건설장들과 협동농장들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단위들에 대한 교차생산조직표를 완성하고 그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맞게 전력공업성에서 선로별교차와 지역별교차를 기동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생산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 공정별, 설비별교차생산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무조건 철저히 준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교차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키며 원료와 자재보장 등 생산준비와 로력조직, 공정별맞물림을 잘하여 최대한의 생산능률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생산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서 송배전계통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부국장 김용철: 그렇다. 송배전계통에서의 도중손실만 줄여도 적지 않은 전기절약예비를 얻을수 있다.

전력도중손실을 극력 줄이자면 송배전선로들을 기술적특성과 용도에 맞게 정리 및 교체하는것과 함께 송배전전압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실례로 현재 진행되고있는 불비한 배전선로교체사업이 결속되여 정상운영되는 경우 순시전력으로 5만kW이상의 도중손실을 줄일수 있다. 또한 송배전전압을 3배로 끌어올리면 전력도중손실을 종전보다 대폭 줄일수 있다.

처장 강춘모: 지금 중요단위들에 전력을 손실없이 집중적으로 보내주기 위하여 송전계통을 대담하게 정리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들과 송변전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타산하여 송전계통을 방사형으로 구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정에 맞게 선로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해나가고있다.

전국적으로 배전선로들을 자기의 기술적특성과 용도에 맞게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평양시와 남포시에서의 배전선로교체가 전부 끝났으며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에서도 이 사업이 결속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책임부원 위상준: 송배전전압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취해지고있다. 평양시 중심구역들에서 이 사업이 이미 끝났으며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지고있다.

각 도들에서 배전전압을 2~3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목표밑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도의 송배전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1차적으로 도소재지들과 읍지구들에서 배전전압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수많은 변전설비들을 개조하고 배전선로들을 정비보수하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경제건설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순간도 잊지 않고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감으로써 오늘의 총진군에 세찬 활력을 더해주겠다.

본사기자 정순성

기술공정을 개선하여 얻은 예비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총공격전의 불길높이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전기절약예비가 기술공정개선에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얼마전에 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 송풍계통공사와 무학분광산 압축공기계통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경소마그네샤와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올해 정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인 광산의 일군들은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 광물생산을 늘이며 10여개의 공장건설 및 건물개건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 수행을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까지 이루어지자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은 올해 전투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하여 손을 흔들며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산책임일군의 얼굴은 그닥 밝지 못하였다.

《올해 우리가 경소마그네샤가 공제품과 광산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자면 적지 않은 전기가 더 요구됩니다.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우리는 전기절약예비를 찾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가야 합니다. 전기절약예비는 우리의 심장속에 있습니다.》

일군들에게 심각한 어조로 하는 책임일군의 말이였다.

사실 지난해까지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파대용량전동기들을 알맞는것으로 바꾸고 무부하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한 광산일군들은 더는 전기절약예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을 새롭게 각성시켰다.

그러면 전기절약예비는 어디에 있겠는가.

협의회가 있은 후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사색을 기울이고 탐구하는 과정에 점차 기술공정개선에로 지향되였으며 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 소성로의 불관통기를 바람량과 압력에 맞게 조절하기만 하면 전동기 한대로 소성로 1기가 아니라 2기에 필요한 바람을 보장할수 있다는 혁신적인 안이 나오게 되였다.

하지만 광물생산과 10여개의 공장건설 및 건물개건전투를 진행하면서 소성로의 불관통기와 송풍관로망을 개조하여 열효률을 보다 높이는 사업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였다가 연소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올해에 계획한 사업도 많은데 다음해로 미루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러나 일단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방도를 찾은 조건에서 물러설수 없다는것이 이곳 책임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결심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광산 기술발전과장, 설비과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대흥공업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망라된 기술혁신조가 무어졌다. 구체적인 계획밑에 불관통기와 함께 바람의 량과 압력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행되였으며 공장의 공무부문 로동자들이 송풍관로망과 불관통기개조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계획보다 빠른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하는 혁신이 이룩되였다.

결실은 컸다. 전동기 10대가 아니라 5대로 소성로들의 바람을 보장하여 경소마그네샤의 질을 올리면서 종전에 비해 전력을 30%이상 절약하게 된것이다.

여기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광산에서는 최근에 무학분광산의 압축공기관로망공사를 새롭게 하여 능력이 큰 압축기를 작은 압축기로 교체함으로써 종전보다 전력소비량을 2/3로 줄이였다.

생산활성화를 전기절약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해나가는 이들의 일본새는 자랑할만 하다.

본사기자 정경철

우리 식 수자식배전반개발에 박차를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우리식의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제작하고있다.

이곳 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설계방식에서 새롭고 기술적특성값들이 수입산에 못지 않다고 한다. 전압, 전류, 력률이 실시간 측정현시되는 수자식배전반은 적산, 주파수안정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전력부하관리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결과 전력정보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하여 무인변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특히 지배인 유경학동무는 수자식배전반의 개발을 발기하고 기술력량편성과 측정설비,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은 첨단의 요새를 기어이 점령할 배심을 안고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애국의 열정을 바쳐 자체실정과 조건에 맞게 설계를 완성하였다. 구성요소들의 결합도 최대한 안전성이 높고 실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실험실적단계에서 기술적특성값들이 응당한 수준에 도달하자 이곳 기술집단은 여러대의 수자식배전반을 제작하여 몇달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송배전부의 오랜 기능공들은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기술적으로나 사용자적견지에서 미흡한 점이 없게 훌륭히 완성되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도안의 해당 부문 연구사들도 수자식배전반의 국산화실현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들은 수자식배전반에 필요한 각종 조종프로그람들을 높은 수준에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기술자들과 함께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이어왔다.

성과가 확대될수록 이곳 당조직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수자식배전반개발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이라는 자각을 심어주며 적극 떠밀어주었다.

수자식배전반개발사업이 가지는 경제적의의는 크다.

전력관리의 수자화실현으로 생산된 전기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고 변전소들의 무인화를 실현할수 있다. 값비싼 수입산배전반이 아니라 자체로 생산한 설비로 전력공급계통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 앞으로 적지 않은 량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

지금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개발하고있는 수자식배전반은 어느 한 중요변전소에 도입되여 운영되고있다. 운영단계에 들어간 수자식배전반들은 자기의 기술적성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운영과정에 나타난 제한성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동시에 심화되고있다.

운영단계에서 보다 완성되면 도송배전부에서는 더 많은 수자식배전반들을 자체로 만들어 도안의 크고작은 변전소들에 도입할 목표를 세웠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첨단에로 비약하려는 함경남도송배전부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은 좋은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나라의 전력관리체계를 전기절약형으로 확고히 전환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무궤도전차수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력소비가 많은 설비들을 개조하고 리용하여 나라에 큰 리익을 주고있다.

현재 공장에서 가동하는 여러대의 용접기들과 아크식주강로는 종전에 소비되던 전력량의 65%정도의 전기를 리용하면서도 무궤도전차수리를 비롯한 모든 경영활동에 효과있게 이바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무궤도전차수리를 위한 정평과 제관, 부속품가공 및 생산과정에 용접작업이 수시로 진행되는 이 공장은 전력이 필수적으로 쓰이는 단위의 하나이다.

지금 공장에 도입되여 크게 덕을 보고있는 전류안정화기술에 의한 용접기는 크기가 작고 용접효률이 높으며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것으로 하여 이미 도입한 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설비이다.

이 용접기는 일반교류용접기보다 전력소비량을 절반이상 줄이면서 다양한 제관과 소재의 용접작업을 충분히 할뿐아니라 그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한번에 여러대가 동시에 가동하여도 열에네르기손실이 적으며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용접기는 생산원가도 적은것이 특징이다. 종전에 리용하던 2대의 일반교류용접기를 개조하면 새형의 용접기 3대를 충분히 만들수 있는 우점이 있다.

림창식, 전정택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지난 기간 자기 단위에서 소비되는 크지 않은 전력도 나라의 재부라는 옳바른 관점밑에 적은 전력으로 무궤도전차수리를 원만히 할수 있도록 제관과 공무, 생필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현장들에서 리용되던 용접기를 전부 새형의 용접기들로 개조할 작전을 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리병호동무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설비들을 경제적의의가 큰 전기절약형의 설비들로 개조하는 과정에 창조적지혜와 힘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를 포함한 오랜 기능공들은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선률의 절연성을 높이는 등 성능이 높은 용접기를 완성하여 현실에서 크게 은을 낼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큰 덕을 보고있는 용접기는 최근에 진행된 백수십대에 달하는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과 과학기술전당 야외전시장의 철구조물조립과정에 그 우월성이 뚜렷이 발휘되였다.

공장에서는 무궤도전차수리에 절실한 집전머리를 만드는 아크식주강로공정에도 전류안정화기술을 받아들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있다. 종전에 집전머리주물공정에서는 무부하차단기를 설치하고도 주강시간이 오래여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여기서도 전력소비를 극력 줄일 애국의 마음안고 자재가 적게 들고 전기소비를 줄이는 공정으로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의 성실한 노력속에 주강공정에 새 기술이 도입된 결과 이 공정의 무효전력은 종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고 쇠물 1당 전력소비량도 국가기준에 도달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이 단위에서 전류안정화기술에 의한 용접기와 주강로계통이 개조되여 한해동안에 절약되는 전기는 수만kWh에 달하고 있다. 결국 공장에서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있으며 수도의 려객운수보장단위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이룩된 성과를 토대로 하여 공장적인 변압기계통과 전동기들에도 새 기술을 받아들여 전기소비량을 줄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불같은 애국의 마음안고 모든 설비를 전기절약형의 실리적인 설비들로 개조할 때 나라에 그만큼 큰 리익을 주고 인민경제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해마다 수만kWh의 전기를 절약

수도려객운수국 무궤도전차수리공장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있다.
—평천구역송배전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우 선 적 인 사 업

우시군도시건설대에서

얼마전 우시군 우시고급중학교에는 콤퓨터와 땔감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가지고 우시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이 찾아왔다. 바쁜 속에서도 늘 학교사업에 관심을 돌리군 하는 이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우시군도시건설대로 말하면 군의 건설대상들을 도맡아 해제끼는 단위이다. 할 일도 많지만 후대교육을 위해서는 언제나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나서는 이들을 보면서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은 뜨거운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대장 김원혁동무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일이야 우선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부탁하기전에 먼저 도와주는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할뿐입니다.》

이것이 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있는 뜨거운 후대관이였다.

학교를 도와주는 일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주는 이들이 교육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고무로 되였던가.

그들을 바래우며 교원들은 생각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저들이야말로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인민이 바라는 일, 미래를 위한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참된 일군들이 아니겠는가.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기 위해 투쟁하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기에 새 세기 교육혁명도 앞당겨 수행되게 된다는 확신으로 교원들모두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였다.

본사기자

청년들을 벅찬 투쟁속에서 더욱 억세게

홍원군당위원회 사업에서

군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그 어떤 과업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제끼며 기적을 창조하는 미더운 청년집단…

이것은 오늘 군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홍원군 인민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하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런 평가의 주인공들로 되게 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지난해 가을이였다. 군의 청년사업과 관련한 한건의 자료를 놓고 군당책임일군은 생각이 깊어졌다.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미더운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청년들은 아직 벅찬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지 못하고있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틀어쥐고 내밀지 못한 군당위원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는 찾아보았다. 자책이 큰것만큼 결심도 새로와졌다.

돌격대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준비시키자는 군당책임일군의 제기를 청년동맹일군들은 물론이고 군책임일군들모두가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군안의 핵심청년들은 물론이고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하려는 백여명의 청년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청년돌격대에 첫 과업으로 니탄캐기전투를 맡겨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에 고무된 청년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보름동안에 3천여t의 니탄을 캐내여 유기질복합비료공장과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이전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이렇게 되니 군안의 인민들은 청년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첫 전투를 계기로 기세가 충천해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읍지구 주민세대들의 먹는물보장을 위한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의 돌파구를 열 과업을 맡겨주었다. 공사장을 때없이 찾아와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고무추동하고 후방사업도 통이 크게 해주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믿음과 사랑은 청년들에게 나래를 달아주었다.

한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판로굴착공사, 천수백㎥의 배수지기초공사는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났다.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가 완공되여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에 수질이 좋은 수도물이 흘러드는것을 보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은 크나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였다.

지난봄 미래원건설을 앞두고 군당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다. 감탕층이 7~8m나 되는 수렁판에 부지를 정한것으로 하여 기초공사가 제일 난문제였다.

청년돌격대에 기초공사를 맡기자는 군당책임일군의 제안을 놓고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끝내야 하는 공사인데 조직된지 얼마 안되는 청년돌격대에 맡겼다가 혹 기일을 보장하지 못하면 어찌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앞섰던것이였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립장은 확고하였다.

《우리 당의 믿음을 뼈에 새긴 청년들앞에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더욱 억세게 키웁시다.》

이렇게 되여 미래원기초공사는 청년돌격대가 맡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기초공사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돌격대원들은 허리를 치는 감탕판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무섭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돌격대원들의 전투성과를 방송을 통하여 기동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군안의 당, 행정일군모임마다에서 알려주어 청년중시기풍이 온 군에 차넘치도록 하였다. 그토록 어렵다던 기초공사는 20일동안에 끝났으며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미래원이 훌륭하게 완공되였다.

돌격대활동을 통하여 청년들모두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치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자라났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진 후 군에서 수십명의 청년들이 백두천구로 탄원한 사실, 수많은 청년들이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 금야청년탄광들에 달려나가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사실이 이것을 실증해준다.

돌격대활동이야말로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동지, 청년강국의 믿음직한 맹장들로 키우는 용광로이며 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청춘대학과정안이였다.

이렇게 성장한 청년돌격대원들이니 어찌 그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와지지 않겠는가.

그렇다. 청년들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곧 군당위원회사업에 대한 평가라고도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철학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4일 딜마 바나로우쎄프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딜마 바나로우쎄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을 바라는 축원의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몽골국방성대표단 도착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치메도르취 쏘쏘르바람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국방성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군관들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독자의 편지
가슴속에 흘러든 혈육의 정

어머니와 함께 제가 해주의학대학 해주시제1인민병원을 다녀온 저녁이였습니다.

뜻밖에도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와하는 어머니에게 그들은 이제부터 영예군인인 아들의 치료는 자기들이 맡겠다며 보약재들과 영양식품 등을 내놓는것이였습니다.

그때부터 과장 장명수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매주 저의 집을 찾아와 검진을 진행하고 앓을세라 따뜻이 돌보아주고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의료봉사에 저의 집식구들이 송구스러워할 때면 의료일군들은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돌보는것은 자기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군 합니다.

언제인가 중앙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였을 때였습니다. 과장선생님은 평양에 사는 지식에게 련락하여 제가 검진기간 사소한 생활상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대할 때마다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리군 합니다.

명절이면 저를 찾아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들, 저를 업고 대고조전투장으로 달려나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고무해주는 그들이야말로 저의 친혈육, 친부모였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곁에 있기에, 화목한 대가정에 안겨살기에 저는 비록 침상에 누워있어도 행복한 삶을 누려갑니다.

해주시 남산동 8인민반
지철혁

겨울철생산준비를 잘 갖추고 총공격전을 본때있게 벌리자

계절을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

석탄공업성에서

겨울철이 다가오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석탄증산투쟁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자면 탄광들에서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겨울철석탄생산준비가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수백개의 예비채탄장이 조성되고 운탄선, 통기계통, 갱내배수로개건보수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전차, 탄차생산 및 복구, 탄부문화후생시설보수 등 계획한 모든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석탄공업성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주인다운 일본새가 높이 발휘되고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사업을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으로 대하지 않았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더 많은 석탄을 보장하는것은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해나가도록 성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사상발동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계절을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앞질러가며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현실에 몸을 깊숙이 잠그고 걸린 고리를 풀어나간 성일군들의 책임적인 사업기풍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로부터 출발하게 되였던것이다.

올해에 각지 탄광들에서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이 이전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진행된 측면만 놓고보아도 성일군들이 어떻게 잡도리를 하고 올해 석탄생산전투를 지휘해나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벌써 성에서는 참모회의가 진행되였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일군들도 한자리에 모인 참모회의에서는 수십개 항목의 기본지표와 세부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목표가 제시되였는데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측면은 전투목표시달과 함께 보장대책이 구체화되고 그 수행을 위한 각 부서일군들의 책임분담안이 면밀하게 세워진것이다.

지난 8월부터 각지 탄광들에서는 겨울철석탄생산준비에 일제히 진입하게 되였다.

분담안에 따라 성의 각 부서일군들과 정무원들이 탄광들로, 련관부문과 련관단위들로 달려나갔다.

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는 탄광들의 지하막장은 일군들로 하여금 현실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정책적지도와 경제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가는 작전무대로 되였다.

탄광들에서 현행석탄생산전투를 벌리면서 겨울철생산준비를 위한 수십개 항목의 기본지표와 세부지표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에서 련합기업소와 탄광일군들과 어깨를 겯고 함께 발이 닳도록 막장길을 걸으며 겨울철생산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도록 이끌어주었고 련합기업소나 탄광들에서 해결할수 없는 문제들은 성에 집중하여 책임적으로 풀어나갔다.

순별, 월별로 성에서는 각 탄광들에서의 겨울철생산준비집행정형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주요하게는 종합된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단위들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알맞는 대책을 세워준것이다.

어느 한 탄광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였다.

탄광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부분품생산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다. 성일군들은 그때 탄광주변의 탄광기계공장과 다른 련합기업소 탄광기계공장들에도 생산조직을 해주어 공사가 제기일에 끝나도록 도와주었다.

성일군들의 노력속에 일부 단위들이 현행석탄생산보장에 몰두하면서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며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는 현상들도 극복되게 되였다.

탄광들에서 계절이 앞당겨졌다.

겨울철석탄생산준비에서 기본지표들인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고 겨울철조건에 맞게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계획성있게 벌어진것은 물론이고 일터마다에 난방시설이 갖추어지고 산업도로, 문화후생시설들이 보수되고있다.

탄광들에서 이룩되는 성과들은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가 일군들의 책임적인 일본새와 빈틈없는 작전에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탄광들에서 겨울철에도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팡팡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전투시작전에 승리의 담보를

함경남도림업관리국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로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망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의 많은 몫을 겨울철에 수행하여야 하는 조건에 맞게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겨울철생산준비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특히 관리국의 일군들은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생산기간 로동자들이 사소한 불편이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산지합숙을 잘 꾸리는데 큰 힘을 넣었다.

장진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불타는 열의로 앞장에서 생산준비를 다그쳐 제일먼저 결속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겨울철생산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보름 남짓한 기간에 12동의 산지합숙과 5동의 휴계실, 10여㎞의 자동차와 뜨락또르길, 통쏘이길을 보수 및 건설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매일 많은 통나무를 생산보장하면서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이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미흡한 점들을 찾아내여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 겨울철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홍원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겨울철생산준비를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운재길닦기와 생산설비준비는 물론 산지합숙들에 버섯재배장과 남새온실, 목욕탕을 번듯하게 꾸려놓은 사업소에서는 필요한 후방물자도 미리 착실히 준비해놓았다.

지난해 겨울철생산준비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자동차길과 뜨락또르길닦기를 선행시켜 산지합숙과 휴계실을 비롯한 건물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낸 금야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완공된 시설물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면서 쇠바줄과 륜전기재부속품 등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마련해놓았다.

수동, 정평, 신흥, 검덕, 허천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나무터꾸리기와 통쏘이길, 소발구길과 자동차길닦기를 힘있게 다그쳐 끝낸 기세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대용연료를 리용하기 위한 준비도 예견성있게 진행하였다.

단천, 덕성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겨울철생산준비를 질적으로 다그쳤다.

겨울철통나무생산시작전에 승리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한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충성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일념을 안고 현재 산지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무사고급전보장에 큰 힘을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에서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긍지를 안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맞게 무사고급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평양전철대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무사고급전을 철저히 보장하여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대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수송전사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전차선로와 변전소들에 대한 설비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고있다.

그들은 중대, 소대들에 내려가 변압기와 정류기, 전차선로상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전차선로를 맡은 수송전사들이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자각을 안고 보다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특히 화력탄수송구간을 맡은 중대, 소대들에서 전력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무사고급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자그마한 사고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있다.

그들은 매 선로와 전주상태들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점검보수하고 불량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면서 계절의 변화에 맞게 전차선로점검보수를 잘해나가고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드림줄의 조절을 잘하여 전차선높이를 정확히 보장하고있으며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편위조절을 진행해나가고있다. 또한 선로가 복잡하여 다루기 힘든 구간들에 대해서는 조가선이음물리개점검을 비롯한 설비점검을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전철대에서는 겨울철피해를 많이 받는 차굴의 전차선로들에 담당순회원들을 배치하여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세우는것과 함께 기공구들을 미리 확보해놓아 제때에 점검보수할수 있게 하였다.

대에서는 변압기와 유입설비들이 계절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유입차단기와 고속차단기의 정상가동에 힘을 넣고 급전설비들에 대한 절연시험을 정확히 진행해나가고있다.

지금 평양전철대에서는 담당구간의 전차선로와 전주상태, 변전설비들의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예방보수를 잘하여 렬차들의 운행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다.

윤금찬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끝낸 기세로

판교림산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림업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로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판교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당조직에서는 뜻깊은 올해 맡겨진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사업소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우선 올해 통나무생산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에서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겨울철생산준비를 위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작업소들에서 쇠바줄과 륜전기재부속품들,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마련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다.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에서는 금평, 룡당작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앞장서나갔다.

금평작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많은 구간의 도로닦기를 진행하여 겨울철에도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였다. 룡당작업소에서는 토장건설과 통쏘이길, 소발구길과 자동차길닦기를 비롯한 겨울철생산준비를 힘있게 다그쳐 많은 일을 해제끼였다.

구당, 리상작업소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대용연료를 리용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함께 부림소관리에도 힘을 넣었다.

금구, 상두작업소에서도 산지에서 일하는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기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산지합숙을 잘 꾸려놓고 그들에게 공급할 후방물자들을 착실히 준비해놓았다.

지금 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해놓은데 맞게 통나무생산에서 시작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애국의 한길로

남포유화분사업소 소장 한윤택동무에 대한 이야기

남포유화분사업소는 이름있는 과학연구기관도, 큰 생산기업소도 아니다.

생겨난지 몇해 안되고 종업원수도 손에 꼽을 정도여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이 단위에서는 페유회수리용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현대적인 공정까지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쓸모없이 여기던 페유를 효과적으로 회수리용하여 나라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고 자연환경보호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단위, 비록 자그마한 일터이지만 누구나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큰것을 깨닫게 하는 이 단위에는 참된 주인, 진정한 애국자가 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한길에서 한윤택동무가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보석같은 애국의 구슬땀은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어떤 삶과 투쟁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귀중한 대답으로 된다.

량심의 선택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저녁노을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줄 몰랐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래왕이 잦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 이곳에서 페유처리때문에 적지 않게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페유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였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였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자그마한 오염구역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저도모르게 소스라쳤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조국을 위해서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어린시절부터 그리도 자주 시구절들을 외워온것은 바로 이 시각을 위해서가 아닌가.

그날부터 한윤택동무는 며칠밤을 새워가며 페유를 회수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자자구구 뼈에 새겼다.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해야 할 사업으로 두어깨에 걸머졌다.

당조직에서도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인생은 선택의 련속이라고도 할수 있다. 어떤 길을 택하는가, 그에 따라 인생의 짐이 달라진다. 조국의 전진에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자기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가 하는것도 바로 이 선택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한윤택동무는 그때처럼 자신의 선택을 놓고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페유회수리용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오랜 기간을 거쳐서야 겨우 성공의 빛을 본 헐치 않은 길이였다. 그것을 우리 힘과 기술로 해내야 하는것이야말로 초행길을 헤치는것과 다름없었다. 그 누군가가 걸은 길로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제손으로 개척하며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스스로 택한 량심의 길에서 그의 발걸음은 오직 앞으로만 향했다.

이 나라 애국자들의 대오속에 한윤택동무와 종업원들도 들어섰다.

남포시안의 도서실들과 대학, 그의 사무실과 가정을 비롯하여 한윤택동무가 있는 그 어디서나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대학기간에 배운 전공지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화학과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그가 읽은 기술서적들을 쌓아놓는다면 아마도 몇사람의 키를 훨씬 넘을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리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그는 인민대학습당에도 열집 드나들듯 자주 오갔다.

페유재생리용기술에 대한 일정한 파악이 생기고 해보고싶은 충동도 느꼈지만 힘겨운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였다. 설비들을 제작하여 페유재생공정을 꾸리자면 실로 많은 자금과 로력이 들어야 했던것이다.

한줌의 세멘트, 한m의 철근이 귀했다.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한윤택동무는 몇명 안되는 종업원들과 함께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발이 닳도록 찾고 또 찾았다. 그곳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못쓰게 된 설비들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한 배수리기지를 찾았을 때에는 혹간 눈에 띄는 용접봉꽁다리까지도 바지주머니에 걷어넣었다. 한쪼각의 파철도 귀중한 나라의 재부라는것을 한윤택동무는 그 나날 더욱 새삼스레 절감했다.

어느날 저녁 집에 들어와 밥상을 마주한 한윤택동무에게 그의 안해 리경희동무가 가죽으로 만든 두툼한 가방 한개를 조용히 내놓았다.

《래일부턴 그 가방을 쓰세요. 그것도 작으면 더 큰것을 만들겠어요.》

남편의 바지주머니를 손질하며 안해가 하는 말이였다.

한윤택동무는 안해의 그 마음이 더없이 고마왔다.

언제 봐야 말이 없던 안해, 페유재생공정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여 뛰여다니는 남편의 일을 한가지라도 돕기 위해 한뜸두뜸 제손으로 가방을 만들었을 안해의 수고가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여다니는 바쁜 속에서도 그 가방에 모으고모은 유휴자재는 량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몇십t 아니 몇백t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한윤택동무와 종업원들은 령하 20℃나 되는 겨울철에 강에 나가 두터운 얼음을 까며 골재를 마련했다. 용접봉이 모자라면 자체로 해결했고 수많은 벽돌과 철근, 내화벽돌에비도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냈다.

자력갱생, 이 네 글자를 생명처럼 품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그대로 구조물이 되고 부속품이 되였으며 설비가 되였다.

페유재생공정은 드디여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게 되였다.

한윤택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부두에 정박한 선박들에 올랐다. 한t한t 페유를 수집하여 실험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피타게 마련한 물질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였지만 성공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숱한 품을 들여 힘들게 일떠세운 생산공정에서 페유를 재생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예순번째 실험마저 실패했을 때 한윤택동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우리가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는것이 아닐가.)

바로 그러한 때 상급단위의 당일군이 그를 찾아왔다.

《윤택동무도 이렇게 맥을 놓고 주저앉을 때가 있소? 새것을 창조하기가 어찌 떠먹듯 쉽겠나. 한동무,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민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힘이 생길거요.》

《고맙습니다. …》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울리군 한 당일군의 목소리, 그것은 진정 이들의 투쟁을 한시도 잊은적 없는 고마운 우리 당의 목소리였다.

페유재생공정이 다시 개조되였고 연구실험은 계속되였다.

드디여 정제공정을 거쳐 맑은 재생연유가 흘러나올 때 한윤택동무는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조국을 위한 량심의 선택, 애국의 선택도 귀중하다.

하지만 한번 들어선 길을 순간의 탈선도 없이 곧바로 끝까지 가는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 길에서 때로는 자기들의 피와 땀이 슴배인 창조물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일터를 부단히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의 련속이기도 하다.

중요대상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새로 모시는 사업이 제기되였을 때 자기들의 일터에서 생산한 수십t의 연유를 보장하는 한윤택동무와 종업원들의 심정은 기뻤다.

세포등관개간전투장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어느 한 농장에 또다시 수십t의 연유를 보내줄 때에도 이들의 긍지는 남달리 컸다.

그때마다 한윤택동무는 더 많은 페유를 재생하여 강성국가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싶었다.

하지만 욕망은 현실과 너무도 먼거리에 있었다. 생산능력이 제한되여있었던것이다.

한시바삐 가고싶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이 사실을 제일먼저 아뢰고싶었다.

한윤택동무와 종업원들은 그 길로 시안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모두가 첫 시제품을 들고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교시를 결사관철한 혁명전사들의 충정의 보고였고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또 하나의 로력적선물이였다.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한윤택동무의 량심의 선택, 그것은 이렇게 실천속에서 검증되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었다. 온 나라 공장, 기업소들에 현대화, CNC화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현실앞에서 한윤택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생산공정을 개조하자. 그것도 발전된 높은 수준에로 단번에!)

작업장에 들어선 한윤택동무는 주저없이 이런 대담한 결심을 내렸다. 그토록 품들여 꾸려놓았던 생산설비들이였다.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제 살점처럼 여겨지던 설비들이였다.

하지만 일터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끌어올리는것, 이것은 단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말이나 구호로 웨치는 충정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표현되는 충정이 필요했다.

더 많은 페유를 재생하는 지름길은 다름아닌 일터의 현대화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길이였다.

한윤택동무와 종업원들은 건물부터 멋쟁이로 일떠세우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10명도 되나마나한 로력으로 수만장의 블로크를 찍었다.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일감을 맡아안고 뛰고 또 뛰였다.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떨쳐나선 일터는 총포성없는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그러던 어느날 한윤택동무가 큼직한 책보따리를 종업원들앞에 내놓았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두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종업원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 책보따리를 바라보았다.

《동무들, 오늘부터 또 하나의 전투를 벌려야겠소. 현대화된 일터에서 일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하오. 우리가 일터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한윤택동무의 말을 들으며 종업원들은 다시금 분발하였다.

일터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야 함을 자각한 모두는 전투의 쉴참마다 또 하나의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종전의 페유재생공정을 완전히 들어내고 현대적인 새로운 공정을 일떠세운 한윤택동무는 페윤활유재생공정까지 꾸려놓았다.

헐치 않은 격전으로 이어진 그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기에 다 적을수 없다. 다만 우리는 보통인 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글몇토막을 전하려 한다.

《몹시 힘들다. 하지만 페유재생의 질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

한번 선택한 이 길에서 죽어도 물러서지 말자.

하루빨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오늘 평양역에 안해와 딸이 마중나왔다.

먼 출장을 갔다가 트렁크에 기술서적만 한가득 가지고왔다고 딸이 볼이 부어 눈을 살짝 흘겼다.

아버지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딸에게 미안한감이 컸다.

하지만 그 애도 크면 알게 되리라.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었으며 어떤 삶이 참된 행복인가를 앞으로 자기의 자서전에 정자로 적어넣으리라.》

한윤택동무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일기를 쓴다.

단순히 자기자신과의 말없는 대화만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당앞에 다지는 그의 마음속선서이고 불같은 실천이다.

한윤택동무와 종업원들은 지난 10월초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끝끝내 현대적인 페유재생산공정을 조업하였다.

오늘날 이 단위에서는 재생된 연유와 윤활유들을 시의 지경을 벗어나 다른 도, 시, 군들에까지 보내주고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되고 자연에네르기까지 적극 개발리용하고있는 일터의 모습을 보며 찾아오는 사람마다 감탄하고있다.

한윤택동무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일터를 부단히 올려세우는것이다. 당에 대한 충정이 어떤것인가를, 참된 애국이란 어떤것인가를 그는 수십권의 책에도 다 담지 못할 고귀한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 *

참된 애국자들의 발걸음에 의해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조국은 힘차게 전진한다.

남포유화분사업소 종업원들도 그 대오속에 당당히 서있다.

우리는 비록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조국이라는 거목을 대들보처럼 받들고있는 무수한 뿌리의 형상을 본다.

한몸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충실한 열매를 가꾸어가고있는 그들의 심장의 웨침을 듣는다.

작은 단위일수록 목표를 더 높이 세우라.

그리고 쉬임없이 돌진하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김충성

태양의 빛발따라 애국의 필봉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을 추동해온 자랑스러운 로정

총련 《조선신보》의 70년력사를 더듬어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혁명승리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온 우리 인민은 얼마전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언제나 조국과 운명을 같이해온 총련에도 올해에 경사스러운 기념일이 많다. 지난 5월 총련결성 60돐을 성대히 경축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얼마전 《조선신보》창간 70돐을 기쁜 마음속에 기념하였다.

이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주체적해외교포신문의 시원이 열리던 못 잊을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의 년대기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조선신보》를 해외교포신문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께 가장 열렬한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총련을 전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주체적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습니다.》

《조선신보》가 걸어온 70년의 로정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극진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애국애족운동의 승리의 력사를 수록해온 빛나는 로정이며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파탄히 물리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힘찬 전진을 추동해온 자랑스러운 로정이다.

애국의 고고성을 터치던 그날로부터

오늘 세계 20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발간되고있다. 해외교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변하는 출판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신보》처럼 위력하고 권위있는 해외교포출판물은 없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쇠사슬에서 벗어난 환희로 가슴들먹이던 재일동포들에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담은 신문이 발간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것은 해방의 그날로부터 불과 두달도 안되던 주체34(1945)년 10월 10일이였다.

애국의 돛을 올린 《조선신보》의 항로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가로놓여있었다. 미일반동들은 갓 태여난 재일동포들의 신문을 요람기에 말살하기 위해 갖은 비렬한 책동에 매여달리였다.

하지만 《조선신보》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감격적인 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들끓는 기세를 신속히, 격조높이 전하여 재일동포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민족권리옹호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미제가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의 공식사용과 해설선전을 무작정 금지시키였을 때에는 공화국기사수투쟁의 나팔수로 앞장섰다.

《조선신보》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고무자, 정신적량식을 주는 벗이였고 원쑤들에게는 간담을 서늘케 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악에 받친 미일반동들이 조선전쟁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던 1950년 8월 《조선신보》를 강제페간시키고 출판기자재들을 압수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으나 재일동포들은 굴하지 않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2년만에 신문의 복간을 실현시키고야말았다.

재일조선인운동이 진통을 겪던 어려운 시기에 《조선신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전환방침을 견결히 옹호하고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주체적인 해외교포단체인 총련을 결성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의 결성과 함께 《조선신보》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신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리익과 의사의 대변자, 총련의 집단적인 선전자, 교양자, 조직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조선신보》는 해외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튼튼히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민중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여 《우리 신문》, 《해방신문》, 《조선민보》 그리고 오늘의 《조선신보》로 그 이름이 여러번 바뀌였지만 신문의 애국애족적인 성격과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해방직후 자그마한 등사인쇄물을 발간하던 조선신보사가 오늘은 여러가지 출판보도물을 찍어내여 세계의 백수십개 나라와 지역에 보급하는 위력하고 권위있는 신문사로 발전하였다.

《총련애국사업의 믿음직한 방조자》, 《재일조선인들의 진정한 대변자》,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 참다운 길동무》…

이것이 《조선신보》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정넘친 부름이다.

언제인가 총련을 찾았던 외국의 한 인사는 일본에 가면 《작은 공화국》으로 불리우는 조선의 해외교포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총련이 위력한 조직이라는것을 조선신보사를 참관하고 잘 알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권위있는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간하고 여러종의 대외출판물들까지 찍어 수많은 나라들에 배포하고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창간후 오늘에 이르는 70년세월 주체적인 보도선전활동으로 반동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과 악랄한 폭압공세를 짓부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떠밀어온것으로 하여 《조선신보》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받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해외교포신문으로 이름떨치고있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조선신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지난 70년간 《조선신보》가 이룩한 모든 성과와 업적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신보》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신문의 편집발간사업을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렵던 시기에 《조선신보》편집활동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들과 통신, 우리 글 자모활자까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수만리길을 거쳐 전해진 국문활자들은 천금보다 귀중한 사랑의 생명수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선신보사 기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자신과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며 총련에서 보내오는 《조선신보》와 《인민조선》을 늘 읽어보는데 파녁이 바로서고 론리가 당당하다고, 총련기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일을 잘하고있다고 과분하게 평가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믿음과 은정을 되새길 때면 오늘도 재일동포들은 한없는 격정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총련의 출판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리끼의 장편소설 《어머니》에는 혁명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소설을 읽고나면 혁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조선신보》도 사람들의 감정과 기호에 맞는 소리를 하여 동포들스스로가 진리를 찾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신문을 동포들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면서도 수가 높게 편집할데 대한 문제,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편집방식에서 벗어나 대상화, 통속화할데 대한 문제 등 그이의 고귀한 가르치심들은 《조선신보》가 침체를 모르고 동포대중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 휘황한 등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기자들에게 조국취재의 보람찬 활무대도 펼쳐주시였다. 주체77(1988)년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속에 조선신보사 평양지국이 개설되였다.

이때부터 평양에 상주하는 총련기자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아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모습을 글과 사진에 담고있다. 그들이 발신하는 기사와 사진들은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조선의 참된 모습을 전달하고있다.

취재현장에서는 뜨거운 혈육의 정이 오고간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사랑하시는 총련기자들이 왔다고 따뜻이 맞아주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은 언제나 이역의 문필가들을 감격에 목메이게 한다.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이역의 문필전사들이 억세게 자라났고 《조선신보》는 총련의 주체사상화와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정치사상적무기,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로 될수 있었다.

그 나날 조선신보사는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조선신보》는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고 수많은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 인민기자, 공훈기자 등으로 되였다.

참으로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문필가들도 많지만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자라난 총련의 문필가들과 같이 행복하고 긍지높은 사람들은 없다.

영원한 애국애족의 한길에서만 《조선신보》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영예가 빛날수 있다. 오늘 《조선신보》의 명맥은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라난 총련의 미더운 새 세대들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그들의 철석같은 애국의 의지와 드높은 기세가 어려있는 기사편집물들은 동포사회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 미래에 대한 락관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지금 조선신보사의 전체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애족의 정신, 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보다 튼튼히 다지면서 애국위업의 새 전성기개척의 도약대를 마련하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조국인민들은 굳게 믿고있다. 《조선신보》가 영원히 태양의 빛발따라 주체의 해외교포신문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허영민

평화파괴자의 추악한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싸드》(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의 남조선배비문제를 계속 론의하고있다. 미국의 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의 부총사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그것을 토설하였다. 발언이 보도계에 전해지자마자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저마다 그런 일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어쩐다 하면서 발뺌질에 여념이 없다. 록키드 마틴회사측도 부총사장이 실언한것이라고 구구히 변명하였다.

하지만 엎지른 물은 다시 퍼담지 못한다고 《싸드》의 남조선배비와 관련한 협상진행소식은 당사자들이 부정하면 할수록 보다 큰 신빙성을 띠고 국제사회에 파급되고있다. 여론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싸드》의 남조선배비와 관련한 협상을 숨기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가장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이 이를 한사코 거부하며 남조선당국과 위협천만한 쑥덕공론을 벌려놓고있는것은 항시적인 전쟁위협이 떠돌고있는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인류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더우기 격분케 하는것은 미국이 황당무계하게도 우리의 《위협》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원래 미국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전인류를 몇번이고 멸살시킬수 있는 핵무기와 공격형미싸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는것도, 세계도처에 그것을 전개하고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는것도 미국이다. 미국때문에 세계가 핵위협, 미싸일위협속에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력을 놓고 아부재기를 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걸고드는것은 저들의 도발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다.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쎈터 책임자 알렉싼드르 궤빈은 미국이 조선과 화해하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리유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조선의 〈위협〉을 구실로 자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정당화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것이 무엇보다도 로씨야와 중국을 겨냥한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조선을 〈악〉으로 규정해야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주둔을 합리화할수 있는것이다.》라고 까밝혔다.

사실상 터무니없는 우리의 《위협》을 간판으로 내들고 그뒤에서 저들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지배정책을 실현하자는것이 오바마행정부의 타산이다. 그들은 세계의 주요대국들이 밀집되여있는 이곳에서 미국의 뒤흔들리는 지배권을 공고히 하자면 확고한 군사적우세를 보장해야 한다고 간주하고있다. 최근년간 이러저러한 명분을 턱대고 조선반도주변에 미국의 살인장비들이 쓸어들고있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전 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국방성은 2016년도 미싸일방위예산으로 81억US$를 할당하였다.

미국이 전개하려는 미싸일방위체계는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각이한 대상과 목표물들을 타격할수 있는 공격용첨단무기체계이다. 미국이 조선의 미싸일을 막기 위해 전 유럽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며 알라스카로부터 일본과 남조선, 오스트랄리아에까지 미싸일방위망을 확대한다는것은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궤변이다. 이것은 로씨야와 중국을 둘러싸고있는 변두리에 각이한 급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사면팔방으로 미싸일공격을 들이대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비하려고 발악하는 《싸드》의 기술적특성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싸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특히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X대역레이다의 탐지거리는 수천km에 달한다. 그런것만큼 《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는 경우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의 군사적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할수 있게 된다. 미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미싸일방위체계가 조선반도주변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서 임의의 시각에 상대방의 전략대상들을 무력화시킬것을 노린 선제공격체계로서 지역긴장의 주되는 요인이라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실행의 출구를 조선반도에서 찾으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지정학적으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력사적으로 루적된 국제적성격의 문제들이 겹쳐있는 조선반도에서 폭넓은 대륙포위망을 형성하여 저들의 전횡과 독단만이 허용되는 극동지역, 아시아대륙을 만들려는것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본심이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며 미국이 오늘날 계단식으로 격화시키는 조선반도정세긴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략실현의 일환이다. 임기말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 지배주의적전략실행의 전파를 올리기 위해 발악하는 현 미행정부의 책동에 의해 조선반도에서는 갈수록 군사적대결이 짙어가고 핵군비경쟁의 검은구름이 몰려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위협하며 누가 도발을 하고있는가하는것은 명백하다. 세계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자,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이 까마귀가 백로흉내를 내듯이 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은 사태를 옳게 파악하고 선택을 바로해야 한다.

배금희

대세에 역행하는 대결망동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모략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속에 남조선당국이 그 앞장에서 기를 쓰며 날뛰고있다. 얼마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인권결의안》의 작성과 제안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가담해나선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적대세력이 그 누구의 《인권상황》이니, 《책임》이니, 《적절한 조치》니 하는따위의 허위와 모략으로 엮어진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해마다 조작해내는것도 지겹기 그지없지만 그에 발벗고 나서는 남조선당국의 추태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꾸며내는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자체가 신성한 인권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터무니없는 악담과 모략자료들로 전면부정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는 그 《결의안》이라는것이 참다운 인권의 존중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오로지 반공화국압살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공화국과 같이 인민대중의 온갖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권존중의 나라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뿐아니라 행복과 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존엄높이 살고있다. 인민을 중심에 놓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인민대중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보장해주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적대세력의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애당초 인정조차 하지 않고 단호히 차버리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우기 파쑈독재의 서슬푸른 칼날을 휘두르며 남조선을 인간증오, 인간멸시의 세상,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장본인들이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소란을 피우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인권》소동을 벌리기 전에 저들의 처참한 인권실태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하려고 그토록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은 그들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체제통일》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북인권결의안》조작책동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행위로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대결망동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들고나와 체제대결을 격화시키면서도 《대화》에 대해 떠드는것은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격레의 요구로 보나 대세의 흐름으로 보나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야 할 지금 남조선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하는것은 실로 분별없는 처사이다. 지난 8월의 북남합의이후 아직도 북남관계가 본격적인 개선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 공조하며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최철순

친일, 독재미화를 용납치 않을 확고한 의지

력사교과서《국정화》강행하는 을미5적 물러나라

서울에서 남조선단체들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7일 서울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각층의 투쟁이 벌어졌다.

460여개 시민사회, 력사단체들로 구성된 《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청계광장에서 범국민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력사외곡을 주도하는 현 집권자와 여당대표,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장을 을미5적으로 락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력사교과서문제는 결코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미래와 관련한 문제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르치는것은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당국이 력사해석을 독점하겠다는것은 일본 극우익세력의 립장과 다를바 없다고 단죄하였다.

《국정화》고시강행이후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되는데 당황한 《정부》와 여당이 《민생우선》을 운운하며 국면전환을 꾀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이러한 민생타령은 《종북》몰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이 늘 써먹던 위기탈출용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권력집단이 력사를 우롱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명운동, 초불투쟁, 1인시위, 집앞에 현수막내걸기, 신문들에 《국정화》반대의견광고내기, 인터네트에 글 올리기 등 《국정화》에 불복종하는 시민행동에 참가하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11.14민중총궐기에 모두다 떨쳐나서 당국의 력사쿠데타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력사교과서〈국정화〉강행하는 을미5적 물러나라!》, 《정부는 거짓선동과 거짓광고를 그만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이날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도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당국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독재를 미화하는 현 《정부》의 력사관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후배들이 옳바른 력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화》를 철회할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국정화〉고시 철회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비가 억수로 내리는 속에서도 시내를 행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교과서《국정화》반대투쟁 계속 고조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중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도처에서 보수패당을 성토하는 격분에 찬 목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초불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이 끊임없이 전개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정부》와 여당이 민중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력사교과서《국정화》강행에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국정화》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이것을 력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현행교과서제도를 폐기하려 하는것은 력사를 《유신》독재시기에로 돌려세우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력사교과서《국정화》가 강행될 경우 력사교육은 의미를 잃게 되고 학문과 교육이 정치적희생물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교수들이 지식인으로서의 량심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력사교과서《국정화》반대투쟁에 계속 앞장설것을 다짐하였다.

전교조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력사쿠데타로 락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력사교과서《국정화》에 피눈이 된 현 보수집권세력이 지금 남조선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력사교과서《국정화》에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음모가 깔려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2013년에 있은 력사교과서파동을 민중은 기억하고있다고 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를 외면하고 일본제국주의와 리승만, 박정희 등 포악한 독재자들을 극구 찬미하는 외곡된 력사를 또다시 기록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자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외곡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것은 씻을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보수당국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민족문제연구소를 포함한 21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련대는 력사외곡을 강요하는 보수당국을 규탄하여 집회를 벌리였다. 이 단체 대표들은 남조선 곳곳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청소년, 대학생,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친일의 장본인인 《유신》독재자후예의 력사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정의의 웨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야말로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단죄하면서 옳바른 력사를 위한 투쟁에 각계가 힘을 합쳐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 단체는 앞으로 서명운동, 초불투쟁 등을 통해 《국정교과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얼마전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유신》독재부활을 꾀하는 보수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시국선언운동을 벌리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보수당국이 민중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정화》를 강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비밀리에 전문집필조를 내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국정화》는 시대에 역행하여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력사학전공 대학원생들과 대학원졸업생들은 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성명에서 《국정화》자체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민주화투쟁 등을 력사의 중심에 놓는것은 결코 잘못된 력사서술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도 수천명의 학생들이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옳바른 력사를 지키기 위해 친일교과서를 만들고있는 매국노들과 끝까지 싸울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당국이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한사코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수《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전면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라영국

ㄱ-51178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